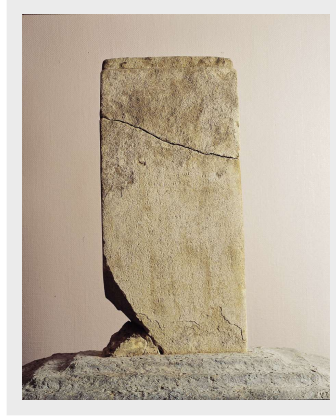


나제동맹[羅濟同盟]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서울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나제동맹은 5세기 무렵 고구려의 남진에 맞서 신라와 백제 사이에 맺어진 동맹을 말한다. 백제는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에 맞서 신라와의 연대를 꾀하였다. 5세기 전반까지 고구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던 신라 또한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백제의 동맹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맺어진 나제동맹을 바탕으로 신라와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었고, 이후 대대적인 반격을 통해 고구려가 점유하고 있던 한강 유역 확보에 성공한다. 그러나 이후 신라는 백제를 배신하고 기습적으로 한강 유역 전체를 독점하였다. 이러한 신라의 선택은 이후 고구려와 백제를 모두 적으로 돌리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고구려왕의 노객(奴客)이 된 신라왕

4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신라는 진한(辰韓) 사회의 통합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게 된다. 이때 신라에서는 김씨(金氏) 왕실이 들어섰고, 마립간이라는 새로운 왕호를 사용하면서 북방의 선진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던 중이었다. 신라가 377년(내물왕 22)과 382년(내물왕 27) 두 차례에 걸쳐 전진(前秦)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이러한 신라의 외교적 노력과 신라 사신을 자국 사행에 동반시킴으로써 자신의 국력을 과시하려 하였던 고구려의 의도가 합치한 성과였다.

하지만 4세기 후반 무렵부터 고구려와 백제의 영역 다툼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 남부 지역의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양국의 충돌 중에 벌어진 고국원왕(故國原王)의 사망과 이후 전개된 한강 유역에 대한 고구려 광개토왕(廣開土王)의 맹공은 백제에게 크나큰 위기로 다가왔다.

이처럼 고구려의 압박에 어려움을 겪던 백제는 가야·왜·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에 대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가야와 경쟁을 벌이고 있던 신라로서는 백제보다는 고구려에 협력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백제·가야·왜 연합군이 도리어 신라를 강하게 압박하는 형국이 전개되었고, 신라는 이에 대응하여 내물왕(奈勿王) 37년(392) 정월 고구려에 실성(實聖)을 인질로 보내는 조치를 취하였다. 고구려에 대한 저자세 '인질 외교'를 통해 내물왕은 밖으로는 고구려와 우호를 다지는 한편, 안으로는 정치적 경쟁자를 견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신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맺어진 고구려와 신라의 화친 관계는 '인질 외교' 이후로 점차